

(2020-1) 000000조합 이의신청 심의결과 (' 20.3.18. 결정)

□ 사실 관계

- ' 17.4.17. ①○○시 ○○동 000-00외 2필지(부동산 1)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면제
- ' 18.8.7. ②○○시 ○○동 000-00번지(부동산 2) 건물 0,000.0㎡ 신축 및 취득세면제
- ' 19.11.8. ①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업무 직접 미사용 취득세추징
②부동산 취득가액 누락분 취득세 부과고지함
- ' 20.2.5. 신청법인 이의신청 제기

□ 쟁점 사항

- ①신청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 처분청 : ○○시장, 부과금액 : 00,000천원

□ 신청법인 주장

- 1)신청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1을 2017.4.17.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을 시작하여 1년이 지난 후 준공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감면에 따른 취득세 3건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며, 2) 이 사건 부동산 2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신청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 가액에서 확인한 취득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우리도 의견 : 경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 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신청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1의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뒤 취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착공한 사실 등 신축에 소요된 기간이 6개월여인 점을 볼 때

바로 착공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사용승인을 받아 해당업무에 직접사용 할 수 있었으나, 특별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1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란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신청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2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